“日관광지 가면 한국인 북적북적”… ‘가성비’에 1위 여행국 부상

‘YES재팬’ 불붙었다

올 1분기 일본 향한 여객수 186만명…1위 등극
엔화값 34년 만에 최저…코로나19 이전比 254%↑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본정부가 추계한 수치로,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68만 8100명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79.5%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한 국가 및 지역은 ‘한국’으로 85만7000명이 일본을 찾았다. 전년 대비 51.6% 늘어났다.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을 위해 줄 서 있다.

2019년 노재팬(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발길이 뚝 끊겼던 일본에 국내 여행객이 몰리면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 1위에 한국이 올라섰다.

5년 전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격화하면서 ‘노재팬’ 운동이 일었지만 최근엔 이때 수준 회복을 넘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다.

34년 만에 엔화값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슈퍼 엔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일 감정이 옅어진데다,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노재팬’이 유명무실해진 영향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국제선 여객(454만3517명) 중 일본으로 향한 여객수는 186만7575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1분기(1~3월) 133만6342명과 비교해 39.8% 증가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일본에 이어 ▲중국(73만7418명) ▲베트남(66만4417명) ▲대만(54만9928명) ▲필리핀(22만9906명) ▲태국(21만4010명) 등이 10만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1순위 여행지로 일본이 부상한 것이다.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일본 엔화 가치는 최근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장중 151.97엔까지 올랐다. 199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엔데믹 전환과 역대급 엔화 약세 이른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1월 방일 외국인 수는 268만81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5%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2%인 8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보다도 10% 늘었다. 1월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3·1절(3월1~3일) 연휴 기간 일본을 다녀온 여객은 21만여명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연휴보다도 4.5% 증가했다.

올 1분기 일본 여행 수요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송출객 수는 2019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 견줘서는 34% 늘었다.

2022년 10월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이후 일본 송출객 규모는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는 2분기를 제외하고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 1분기 송출객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약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집계됐다.

설 연휴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인 일본 북해도 오타루 운하.(사진=여행이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분기 고객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로 오사카가 꼽혔다.

오사카는 1분기 일본 전체 예약의 37%를 차지했다. 오사카 패키지의 경우 오사카를 거점으로 교토와 고베, 나라 등 다양한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어서 중장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여행객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오사카에 이어 접근성이 뛰어난 후쿠오카(27%)와 동계 시즌 성수기로 분류되는 삿포로(23%)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마츠야마(8%)와 오키나와(3%)가 각각 4~5위로 뒤를 이었다.

하나투어도 1분기 기준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 중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6% 회복한 것이다.

올 1분기 전체 해외 여행 가운데 일본 예약 비중은 27.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도 일본 지역 송출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96% 회복한 수준이다.

전체 해외 여행 가운데 일본 지역 비중도 2019년 1분기 17.7%, 2023년 1분기 21.5%, 2024년 1분기 22.5%로 올라섰다.

이 같은 일본 여행 증가는 장기화하고 있는 엔화 약세와 더불어 일본 노선 확대에 따라 항공 좌석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동계 시즌과 맞물려 북해도 여행 수요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자유여행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폐지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오사카와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인기 여행지가 높은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소도시 노선이 확대돼 올해에는 소도시 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젠 유니클로 당당하게 입죠” 韓서 매출 1조 재돌파 전망

FRL코리아 지난 회계연도 매출 9219억 31%↑

“이젠 유니클로(UNIQLO)도 당당하게 입죠. (노재팬)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재팬’ 열기가 사라지고 어느새 ‘예스재팬’ 분위기가 유통가에 자리잡은 모양새다.

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하면,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7일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엔·달러 환율은 151.97엔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노재팬 이후 한동안 국내에서 영업 적자까지 기록했으나 2022년 흑자 전환한 이후 지난해에는 연매출 1조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FRL코리아)는 2022 회계연도(2022년 9월~2023년 8월) 매출이 9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1412억원을 기록했다.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가운데 하나다.

일본 불매 운동 직전인 2018 회계연도(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당시, 매출 1조378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매장 수 역시 190여개에 달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국내 의류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후 불매 운동 여파로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손실까지 내며 실적 부진을 겪었다. 매출과 매장 수가 감소하자 점유율 역시 2020년 3.9%, 2021년 3.1%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만 2022년부터 점차 실적 회복 추세를 보이며, 국내 의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업계에서는 예스재팬 분위기에 힘입어 유니클로가 올해는 매출 1조원을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